

4/29(금) 대상 23-26장 성전, 영원한 왕조의 기초

22-29장 대부분은 역대기에만 기록된 특수 자료입니다.

다윗은 왕조 계승과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사명의 구간을 마무리합니다.

역대기가 강조하는 <하나님 나라>, <예배공동체>와도 일치합니다.

❶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(22-29장).

솔로몬이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었지만(왕상5:6-18, 대하2장)

실제 성전 건축 부지와 설계도, 건축 인부와 자재 (22:1,15, 28:11-12)

금/은/놋/철/보석들을 준비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(22:3-4,14,16, 29:2-9)

임기 초기, 혹 미약한 왕권으로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다윗은

바로 시공에 들어가도 될 만큼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(22:5, 29:1).

다윗은 방백들에게도 성전 건축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(22:19, 28:21).

다음 세대의 최우선 과제로 성전건축을 꼽은 것입니다.

❷ 다윗은 성전에 종사할 사람들의 조직과 임명까지 마쳤습니다(23-27장).

역대기는 레위인(23장, 24:20-31), 제사장(24:1-19), 성가대(25장), 문지기(26:1-19),

성전 곳간지기/관리인(26:20-32), 가문 대표/관원들(27:1-15), 지파 관리자(27:16-24),

관리들(27:25-34)의 명단과 각각의 직임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.

차등 없이, 제비뽑은 대로 반열과 직임을 결정했습니다(24:5, 25:8, 26:13).

찬양대는 성소 사역자를 세우듯 신중하게 <구별>하여 세웠습니다(25:1, 민8:14,16:9, 신10:8).

찬양은 <신령한 노래> 즉, 예언하는 일에 비견 되었으며(25:1-3)

हे만, 아삽, 여두둔은 선견자로 불렸습니다(25:5, 대하29:30, 35:15).

다윗에게 왕조 계승과 성전(예배)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.

노왕(老王)은 성전(예배)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.

개인도 국가도 하나님(신앙)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나는 예배(신앙)에 우리의 전존재가 달려있음을 믿습니까?

❶ 우리의 인생/가정/일/사역 전반이 <예배>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?

❷ <예배>를 위해 최선으로 준비하며 구별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대상 23-26장